



예술인 열전 | 연극인 류희만 극단 '당진' 대표

그림그리는배우, 배우가그린그림

〈당진〉만을 위해 당진에 사는 남자
당진 연극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극단 〈당진〉



당진의 문화가 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예술 분야를 금세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공연 횟수는 물론이고, 대외적인 수상, 규모 있는 이벤트,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까지, 지역 예술 단체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는 이곳, 바로 극단 〈당진〉의 이야기다.

10년 전만해도 당진에서 '연극'은 무척 생소한 단어였다.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는 유명 극단의 전국 투어가 고작이었다. 현대 2018년 지금, 당진은 '연극'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두 극단 '당진'의 이름으로다. 극단 '당진'은 올 봄에 열린 36회 충남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에서 인기를 끌며 주목 받았던 주민자치 교육극이 정부서울청사에 초청되어 공연되기도 했다. 제3회 당진연극제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야말로 당진 연극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다.

이번호 예술인 열전에서는 그 중심에선 류희만 씨를 만났다. 극단 '당진'의 대표로 만나 시작된 이야기는 자연히 연극인 류희만, 예술인 류희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두 시간동안 쉼 없이 이어진 대화는 '연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이 한 지역의 연극계를 바꾸게 된 이야기였다.

연극불모지 당진을 개척

연극인 류희만과 당진의 이야기는 9년 전에 시작됐다. 대학시절 극회 단원으로 연극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서산의 대표 극단 〈동지〉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진에 극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산도 극단이 생긴지 34년 되었고, 홍성이나 예산에도 극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은 서산보다 좋은 공연장도 있고 젊은 인구도 더 많은데, 왜 당진에는 극단이 없을까. 사실 의문이었어요. 알고보니 창단의 시도

는 여러 번 있었는데 쉽게 이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류 대표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당진에서 극단 창단을 준비했다.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극단 〈당진〉이 탄생했다. 창단 이후에도 그는 한동안 서산과 당진을 오가며 연극을 만들었다. 그러다 결국 삶의 터전을 모두 당진으로 옮겨왔다. 예술은 특히 사람과 지역사회의 교감이 중요한만큼 평상시에도 한 지역에서 부대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무엇보다 이사를 와야 단원들이나 지역 관객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서로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이해하려면 역시나 함께 살아야겠더라고요.”

지역사회 소통 이끌어내는 연극으로 주목

류희만 대표의 열의만큼 단원들의 열정도 커 극단 〈당진〉은 창단 5여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일구기 시작했다. 우선 지역민들이 극단 〈당진〉을 알아봤다. 서서히 팬덤이 생겨났고 SNS에 공연후기가 올라왔다.

극단 〈당진〉은 정기공연으로 꾸준히 무대를 선보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공연을 기획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연극이란 장르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생교육극, 주민자치극 등이 그것이다.

“변하려면 무언가 내 안의 울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입식 교육이나 일방적인 강의로는 그런 울림을 받기가 쉽지 않죠. 현대 예술작품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연극으로 지역의 갈등 사례를 보여주면 그건 곧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죠. 상대의 입장에서라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무대를 통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 2면에 계속



충남대표로 (대한민국연극제) 참가를 앞두고 연습중인 단원들.

사진으로 보는 세상 - 2018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



<고랭지 배추밭>



»왕성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 사무국장
·당진사진동우회제29,30대회장
·2015프란치스코교황 방문1주년기념 전국사진공모전대상수상등
·현당진항만(주)운영팀장재직

2016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당선작가의 시선

시 한편 | 김규환
여름의소리

애벌레들의잉태에서
나뭇잎의바스라지는
소리를 들었는가

하늘 중간에서 퍼부었던
지난여름의빛소리를
사람들은 원없이 물의
엄함을 보았으리라

아직도 벽에 붙은
여름의흉한흔적을
오랜 시간 돌아오는한숨으로
깊게 묻은 아픔을 달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철없는 아이들은
나의 그림자를 밟고 논다.



김규환
당진에서 태어남 / 공주시범대학원문학전공 / 시 전문지 「시와시론」으로 등단
시집 「그리움의 활주로」, 「파도를 모으는 섬」, 「오늘」 / 나루문학회장 역임 / 한국예총 회장상, 국제문학특별상(시부문대상), 황희문화예술상(시부문대상) 수상 / 국민포상(대통령), 황조근정훈장(대통령) 수훈

2016 이시대의 문학인 선정시집 「오늘」

» 2면에 이어서



류희만의 〈양〉

지역 예술인, 전문 연극인을 위한 제도 필요

류희만 대표는 처음 <당진>을 창단하면서 세운 목표가 있다. 10년 안에 지역에 자리를 잡고 시립 극단을 만드는 것이다.

“저희 단원들은 대부분은 전문 연극인이예요. 2, 30년 된 배우도 있죠. 이런 배우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하나의 직업인으로 서려면 시립예술극단 설립이 필요해요.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꿈을 갖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죠. 언제까지 지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서울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나요. 예술인들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21세기는 예술인들의 사회기여도를 인정하고 취미생활이 아닌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야죠.”

같은 의미로 지인의 상점에 파는 물건은 빈말로도 거저 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아는 이가 있다면 공연이나 미술 작품은 공짜로 하나쯤 얻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류 대표의 계획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류 대표의 비밀을 공개하다

“예술을 하나의 상품으로 쉽게 인정하지 못하듯, 흔히 갖는 편견이 또 하나

있다. ‘장인 정신’에 관한 생각이다. 예술가들은 오직 한 분야에 심취해야 한다는 것, 류 대표는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는 오롯이 연극 때문에 당진으로 이사까지 온 류 대표가 불필요한 선입견을 걱정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당진에서 제가 서양화가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함께 그림을 했던 이들 중에 아직도 ‘미술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공도 아닌데 왜 연극을 하냐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보다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렸던 화가이기 때문에 연극만 했던 전공자가 보지 못한 걸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는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 전시된 데미안 허스트의 인체 조형물 작품 〈Hymn 찬가〉를 예로 들었다. 세계적인 작가인 데미안 허스트는 본래 의대 출신인 것이다.

“지금은 연극이 제 삶의 전부예요. 근데 어느 날 연극에 한계를 느끼고 또 다른 재미난 것이 생긴다면 전 과감히 그 길을 택할 거예요. 예술가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건 자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안주하는 삶에 발목을 잡히면 예술가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죠.”

이미 오래 전 예술의 경계는 무너졌다. 평면이니 입체니 하는 장르에 대한 구분도 이제 의미가 없다. 회화 프레임을 미디어가 들어가고, 동화화를 아크릴물감으로 그리는 시대다.

류 대표가 서양화가란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그의 무대가 더 궁금해지는 건 나만의 호기심일까. 반대로 그의 그림은 또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진다.

글, 사진 우현선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발행처 (재)당진문화재단 | 발행인 이명남(당진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총괄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기획총괄 한황우 | 기획 이수용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당진문예의전당) T. (041) 350-2910~6 F. (041) 354-6605/352-6896
www.dangjinart.kr / 취재 편집 인쇄 (주)당진시대신문사
※본 책지에 실린 내용과 사진은 당진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당진문화재단 핵심사업
당진 인문학 시즌 2018

당진에서 매주 열리는 인문학행연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지역언론이 함께 만드는 콘서트
다양한 주제로 시민과 소통하는 강연으로 주목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진에서 인문학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조건부터 교육,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제도 다양하다.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언론에도 '인문

학'을 주제로 내건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문학 강이나 콘서트가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에서 이뤄지고 있어 소도시 지역주민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당진문화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당진

인문학시즌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문학을 통해 지역사회소통 실현

당진 인문학 시즌 2018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사회문화단체에게 지역민과 소통하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인문학 콘서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한 인문학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지역내 시민사회문화단체와 연계사업을 통해 인문학 발전을 촉진하고자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사업의 목적에는 당진문화재단과 당진문예의전당이 인문학의 거점공간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시민단체, 지역언론 협력에 의미

지난 2월 사전 간담회 이후 공모를 통해 인문학 콘서트 주관사로 10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주관 단체는 당진신문, 당진시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 YMCA, 바른인성교육원, 어린이책시민연대당진지회,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당진어울림여성회, 해나루시민학교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가 협찬하고 당진시대, 당진신문, 당진투데이, CI헬로비전충남방송 등 당진 지역 언론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당진 인문학 시즌 2018은 공적유관기관인 당진문화재단과 지역 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문화단체, 지역 언론사가 모

두 협력해 추진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모두가 협력하여 만드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사회문화단체의 원활한 학술적 소통 및 지식교류에 공헌하고 '시민들의 문화가 있는 삶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공연 어우러진 인문학 콘서트

당진 인문학 시즌 2018은 콘서트 형식에 걸맞게 매회 전문가 강연과 공연, 관객과의 소통을 결합해 기획됐다. 특히 매주 다양한 주제로 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유명 강사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기생충 박사서민 교수, 방송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노정선 교수,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 <개성공단 사람들>의 저자 김진향 작가 등이 강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강연주제도 다양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제상, 행복에 대한 성찰, 책과 노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다문화, 부부, 청소년과 평화 등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콘서트답게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됐다. 클래식부터 다문화 공연, 난타, 합창과 같은 음악 공연 외에도 빛그림, 마음 공연 등이 매회 강연의 주제에 걸맞게 기획되어 콘서트의 재미를 더했다.

주관사로 참여한 장수미 당진시다문화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멀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인데 편견을 깨고 인문학도 재미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느끼게 해준 시간이 되었다"며 "특히 문화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해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어서 무척 뜻 깊었고 지역사회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6월말까지 인문학 시즌은 계속된다

[문화가이슈] 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세 번의 인문학 콘서트가 아직 남아 있다. 6월 14일(목) 오후 6시30분에 예정된 이주은 교수의 '해당화 인문학 - 여자를 이해하는 법, 그림 읽기가 그 첫 번째다. 이주은(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그림에 마음을 놓다>, <엄마의 명화편지> 등을 썼으며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현대미술사 박사를 취득하고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강연은 인문학콘서트 8회차로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9회차 공연은 6월22일(금) 오후6시30분 당진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공연장에서 당진어울림여성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성공단 사람들]의 저자 김진향 작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개성공단이라는 공간 속에서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경험했다는 김진향 작가와 함께 작은 만남 속에서 시작되는 통일, 행복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너무 쉬운 통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당진 인문학 시즌 2018의 마지막 콘서트는 늦깎이 학생들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이 강연자로 나서 문해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사회는 개구무늬 박수뿔 씨가 많았다. 일흔의 나이에 배움을 시작해 글자를 익히고 시를 쓰는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시로 쓰는 인생이야기-늦은 글자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는 6월28일 오후 2시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보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관련 문의는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41-350-2914.



기획 *it*수다 '당진의원도심재생' -2부원도심의문화와당진시장

머물고 싶은 원도심 만들기가 최우선 과제

인구의 도시 집중은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외곽의 확장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관공서가 이전하고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었다. 이는 곧 원도심(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켰다. 당진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원도심 재생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한편 원도심 재생의 성공적인 대안으로 '문화, 예술적 접근'이 떠오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018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이 그것이다. 이어 올해는 <기획잇수다>를 통해 당진 원도심 재생에 관한 이모저모를 총 4부에 걸쳐 다룬다. 지면을 통해 당진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만나보고 당진문화재단의 '당진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 글 쓰는 순서
1부 원도심의 역사와 재생 운동
2부 원도심의 문화와 당진시장
3부 원도심 사람들
4부 당진문화재단의 '원도심문화공간읽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상인이 주체가 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청소년 썸페스티벌, 원도심화합한마당, 돌뱅이장터.



지역의 문화, 교육, 종교 오랜 역사 간직한 곳 최근 원도심 곳곳에 일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

시대의 변화속에서도 문화중심지 유지
군청사가 지금의 신청사로 옮겨가고 당진 시내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새로운 상업지구가 개발되기 전까지 만해도 원도심은 독보적인 당진 문화의 중심지였다. 행정과 상업 지구가 밀집되어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문화 소비도 자연스럽게 원도심에 집중되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당진시내권만을 놓고 봤을 때의 문화중심지역은 크게 3곳 정도로 나뉠 수 있었다. 당진문화원과 당진향교 등이 자리한 남산공원 일대와 당진문

예의전당 일대, 그리고 당진시장오거리부터 당진로터리에 이르는 당진원도심 일대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사라진 당진군민회관도 문화공연의 한 중심축이었다. 이후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 광장이 생기면서 시민문화공간이 추가되기도 하고 남산공원 일대에 당진문화예술학교와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며 확장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시의 개발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진시내권의 문화공간들이 축소, 확장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도심은 당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민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50여일 간 당진을 들쭉였던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영역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다. 출마자들의 출정식이나 연설 등과 같은 규모 있는 행사가 대부분 시장 오거리나 당진로터리에서 진행되지 않던가. 이런 현실은 원도심의 쇠퇴와 공동화 우려 속에서도 재생운동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원도심의 종교, 교육시설의 역사

원도심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교육과 종교시설의 역사에 대해 먼저 짚어 보아야겠다. 교육시설의 역사는 당진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던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말 당진지역의 근대교육시설로 당성학교, 통명학교, 면양학원, 남산가속 등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당진공립보통학교의 학교 건물은 현재 당진성당이 들어서 있는 객사 터로 추정한다. 이후 1938년 현 당진초등학교로 교사를 이전, 1947년에 당진국민학교로 개칭하며 지금의 당진초등학교에 이르고 있다. 종교시설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진성당의 경우 1939년에 신설되어 지금까지 그 터를 지키고 있다. 당진성당 터는 원도심내 교육문화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장소다. '성당

구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이야기해주듯이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향교가 있어 문묘가 있는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곳이었다. 한 고을의 관사였던 객사가 있던 곳이라고도 한다. 성당이 설립된 후 '원님이 살던 집'이라 불리던 향교 건물(현재의 성심관 자리)은 사제관이 되었고 초등학교 건물은 성당이 되었다. <<당진읍지>> 발췌) 당진향교는 현재 충남기념물 제140호로 지정되어 당진초등학교 뒤편, 원도심 근방에 위치해 있다. 당진읍내권의 교회사도 당진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진감리교회, 당진장로교회 등이 현재까지도 원도심 내에 위치해 있다.



원도심상가구역도



당진청년센터내

**원도심 주 고객은 학생과 3,40대 여성
“이들이 오래 머물만한 시설 부족”**

역사를 돌아봐도 알 수 있듯 원도심은 오랫동안 문화, 교육, 종교의 중심지였다. 특히 학교가 둘러싸고 있는 원도심의 길목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하교 시간 즈음 원도심에서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당진도시재생추진협의회 안대희 사무국장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중, 고등학생이 원도심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다”며 “상권의 업종만 놓고 봐도 3,40대 여성과 더불어 학생들을 타깃으로 하는 업종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현재 원도심의 문화 소비계층이 3,40대 여성과 학생인 것에 반해 이들이 원도심에 머물며 문화를 향유할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당진시원도심상가변영회 김원곤 회장은 “시장오거리부터 원도심까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오래 머물 수 있게 할 문화거리와 광장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며 “구 군청사와 그 일대를 공원화하고 당진만의 랜드마크를 세워 거리 공연 등을 상시적으로 열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발길이 원도심으로 이어져 상권 활성화와 공동화 현상 회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도심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

최근 4-5년 사이에 원도심 재생에 관한 지역 내 아젠다가 형성되면서 당진시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우선 당진시는 도시과 내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고 당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 상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진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구 군청사 별관에 당진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당진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7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신규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까지 약 6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중심통화로 개선사업과 가족문화센터 건립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당진청년센터 나래가 구 군청사 내에 개소하며 평일 낮 시간에도 젊은 층이 원도심에 머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당진청년센터 나래는 청년모임지원사업, 외국어 강좌, 스터디 그룹 지원, 취창업 상담 및 교육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 전용 도서관,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7월21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달 당진청년센터에서 당진청년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원도심 활성화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당진시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시민과 상인 스스로도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당진도시재생추진협의회(회장 김충완)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다섯 번의 도시재생대학을 열고, 주민 마을 활동가, 전문가 등과 함께 도시재생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시민대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당진시와 정부의 원도심 재생에 관한 다양한 공모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다.

매달 원도심 일원에서 열리는 팔뱅이 장터도 그 결실 중 하나다. 5년차를 맞는 이 장터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상생, 주민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일일 베틀시장이다. 팔뱅이장터는 그동안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연, 볼거리 등을 기획, 시민들이 원도심을 찾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당진창업협회(회장 최승규)와 678시스터즈(공동대표 황남규, 안대희, 백설화)가 주최한 청소년썸페스티벌도 주목할 만하다. 안대희 공동대표는 “오후가 되면 원도심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데 반해 청소년들이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동전노래방이나 당구장 등 밖에 없다”며 “원도심에 청소년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주시는 취지로

청소년을 위한 축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로데오페스티벌, 화합한마당 등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한편 당진시원도심상가변

영회는 동문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공연장을 지역에 개방해 다양한 공연,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뷰 - 김원곤 당진시원도심상가변영회장

“원도심에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 필요”

구군청사공원화와 랜드마크 조형물 건립 제안

김원곤 당진시원도심상가변영회장은 “구 군청사가 이전하고 도심이 확장,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오랫동안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원도심에 유동인구를 늘리고 동시에 시민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구 군청사 일원을 공원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진에는 이렇다할만한 랜드마크가 없는데 공원을 만들고 그곳에 랜드마크를 세워 시민들이 모일 수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시장오거리에서 공원까지 문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장날마다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도심까지 유입될 수 있을 거예요”

김원곤 회장은 “무엇보다도 원도



심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며 “상가변영회에서도 주차장 내 공연장을 개방해 언제든지 지역 축제와 공연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하고, 문화예술축제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게끔 하는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은고객유입증가, 매출증대로 연결하는 과제 남아

당진시장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찾아온 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당진읍지>에 따르면 이조시대에도 장이 섰던 지역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당진시장은 원도심에 비해 좀 더 일찍 쇠퇴의 위기가 닥쳤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낙후된 장육과 복잡한 교통 등

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점차 확장하는 상권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고 머지 않아 당진시장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논란이 지역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여전히 당진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에 밀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진시와 더불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살리기에 나선 결과들이다.

어시장 재건축과 변화

2010년대 초반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역내 갈등 요소로 남아 있던 당진시장 개발 문제가 어시장 재건축으로 결론이 나면서 물꼬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진통이

컸던 만큼 우선 결론이 나고 일에 가닥이 잡히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다. 물론 현재도 상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주차장 이용량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아졌다는 게 시장상인회 측의 설명이다.

2014년 1월 당진시는 당진어시장 재건축 사업에 착공, 총 105억원을 투입해 이듬해 4월에 지상 2층 건물을 준공했다. 하지만 어시장 준공 이후에도 기대와 우려는 계속되었다.

“시장 시설 노후화와 매출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당진시장 내 4개 시장 중 어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시장 활성화 문제가 남아있니까요. 여전히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렵다고들 해요. 아직까지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현대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어요. 우선 주차장 이용 대수만 놓고 봐도 2년 전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날이면 눈에 띄게 젊은층들의 유입이 증가한 걸 알 수 있고요.”(정제의 당진시장상인회장)



1. 국수먹는날 행사에 마련된 시민노래자랑
2. 당진장날 풍경
- 3,4,5. 당진시장상인회는 당진어시장에 입점한 노브랜드, 장난감도서관 등을 계기로 젊은 고객층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6. 어시장 1층
7. 국수먹는날 행사를 찾아온 시민들.



젊은 고객층 잡기 위한 방안 고심

당진시장상인회는 6년 전부터 매달 마지막 장날에 국수먹는날 행사를 열고 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각종 문화공연도 선보이는 행사다. 이처럼 상인들은 당진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당진전통시장음악회, 고객사은대잔치, 원산지 표시 캠페인, 당진시보건소와 함께 진행한 건강한 당진전통시장 만들기, 플포마켓을 비롯한 비록시장 개칭 등이 그 노력들이다.

정제의 당진시장상인회장은 “이마트와 상생협약을 맺고 노브랜드를 입점한 것, 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한 것, 푸트코트 내에 지역의 대형교회와 청년창업시장을 오픈한 것 등이 젊은층을 당진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호재가 되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2년 전부터 조금씩 희망도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뷰 | 정제의 당진시장상인회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변화와 노력도 필요

최근 2년 사이, 젊은 고객층 늘어 노브랜드, 장난감도서관 입점 등의 효과

“오랜 진통 끝에 당진 어시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기대만큼 아쉬움과 우려도 많았어요. 특히 2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죠. 마트가 들어와야 한다는 용역보고서 결과를 놓고 일반 마트가 입점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이마트와 상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노브랜드’라는 새로운 마트가 입점하게 됐죠.”

정제의 회장은 마트 입점을 놓고 상인들과 지자체, 상인회가 함께 고민하고 방

안을 모색했던 지난한 시간을 떠올렸다. 유명 대형마트들이 모두 입점을 거부했던 순간은 참 허탈했다. 그러던 중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신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마트인 ‘노브랜드’ 입점이 확정되면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노브랜드 입점과 함께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서니 자연스럽게 젊은층들이 시장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선 당진시장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



니까요.”

정 회장은 “얼마 전 장난감도서관 옆에 지역의 대형교회에서 청년창업시장을 개업했고 카페도 들어섰다”며 “이런 변화들이 당진시장 활성화에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 전체의 시설 개선 측면에서 볼 때도 지중화가 완료됐고, 비가림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남은 건 어시장 내 고객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상인들의 인식 개선 등”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무질서한 노점 행위를 자제하고 고객선 지키기에 솔선해야 합니다. 원산지와 가격 표시, 상품 진열 개선, 친절 한 서비스 강화 등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인 칼럼

당진의 유형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윤성의
당진시향토유적보존위원

세월은 흘러가면 가뭇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 중에 역사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문화유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 중에 특히 보존 할 가치가 큰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를 한다. 물론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화유적들을 모두 다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유형문화재, 볼 수 없는 것을 무형문화재라 한다.

지정문화재 중에는 문화재보호

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것과, 도에서 지정 관리하는 것, 그리고 당진시의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당진시에는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가 8건, 충청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15건, 당진시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유적이 9건으로 모두 32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 시대의 역사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그 시대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문헌자료의 사실(史實)을 구체적으로 실증(實證)해주는 역할을 하

도 한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면천읍성 성돌에는 글자를 새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성을 쌓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문헌자료에서는 찾기 못한 사실(史實)들이었다.

문화재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특성상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 보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은 더욱 보존상의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문화재는 손을 대지 않고, 원래 상태대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훼손이 심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보존을 위한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얼마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보수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 사람들은 문화재를 보수할 때에 그 문화재의 재료의 산지(產地)가 어디가를 따져서, 보수할 때에 필요한 재료를 원래 문화재 재료와 같은 산지의 것들을 갖다 쓴다고 한다. 우리가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너무 안이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례를 한 가지 들어보자. 면천에는 군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것은 당진시 지정 문화유적 제1호이다. 원래의 것은 1803년에

지어졌었는데,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허물어져 터만 남았던 것을 1959년 7월에 면천(沔川) 북씨(卜氏) 종중(宗中)에서 6모정으로 다시 지었다.

이 정자를 1993년에 당진군 향토유적 제 1호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94년에 이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모양도 다르고, 규모도 훨씬 큰 8모정으로 다시 지어 놓고, 여전히 이것을 당진시 향토유적 제1호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너무 문화재 관리를 안이(安易)하게 생각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소소한 치유

문화가 산책



김희영
면천읍성안그마실관광장

이른 봄벌에 설핏 잠들었다 깨니, 벌써 봄의 끝자락이 아닌 성하의 폭양이 대지위에 녹색의 향연으로 바람에 흔들거린다.

우리는 요즘 어떤 감성으로 살아

가는가!

스마트 폰이 보급된 이후 우리 생활은 빠르게 디지털화 되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때론 서글프지만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년 이후의 노년들도 소외감에 허덕일 때가 있다.

지하철 안에서나 길을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서점에 가는 대신 e-book을 구입해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인간의 감성을 높여주기보다는 점점 메탈라가는 정서를 느끼게 한다.

2018년의 2분기가 지나고 있다. 1년은 4개의 분기로 이루어져 있으니 일년동안 새로 시작할 4번에 기회가 있는 셈이다.

그중 2번째 마지막 달이다. 나는 새로움의 약속을 얼마나 지

키기 위해 노력했는가!

하지만 마음이 급할수록 여유를 잃지 않고 멀리뛰기하기 전 도움닫기를 하듯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갖고 나면 어느새 새롭게 채워진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다. 아직 창창히 남은 1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1/2년의 6월이다.

그립 반년의 시간을 내가 찾으려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한다.

지금 방전되어가는 배터리에 필요한 것은 바로 문화테라피이다.

문화를 통해 치유하는 시간을 갖어 보는 것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에 대한 해답은 문화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나를 위로하는 힘, 힘내고 싶지 않을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 걸음을 옮겨라 두 다리가 지쳐 무거워지면 날개가 펼쳐져 비상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루미- 페르시아 시인의 말이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찾는, 참 좋아하는 글귀다. 이 얼마나 힘을 주는가. 곧 이것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를 하면서 유독 눈길을 끌게 하는 관람객이 종종 많이 있다.

작품앞에서 마치 별다른 미동도 없이 서있는 관람객의 마음속에 살짝 들어가 보면 작품을 통해 치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낀다.

메탈라가는 이 시대에 생각하게 하고 감성을 끄집어내는 그 작품들처럼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가사유상

을 한번 떠올려보자. 그 속에 사유는 무엇인가!

테카르트는 사유의 의미를 매우 넓게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사유란 의심이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다. 라고 의욕은 통상 의지의 능력으로 사유와 구별되는 것이나, 테카르트는 의지와 사유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지의 자유와 사유의 자유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상상된 것은 그 어느 것도 참이 아닐수 있다. 그러나 상상하는 힘은 그 자체로 현존하는 것이며, 사유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감각도 마찬가지이다 감각된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나 내가 감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으며 이것이 사유의 일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유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에서 느끼는 것이다.

똑같이 그린 그림을 누군가는 사진과 같다 라고 말한다 순간 감동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생각을 끌어내지 못하는 식상함에 감성을 더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른쪽 무릎에 팔꿈치를 얹고 손가락을 볼에 대어 사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내 감정에 기복을 송두리째 포용하며 언제 보아도 시시각각 우리를 치유하게 한다.

요즘 계절이 밖으로 나오라 손짓하면 그 밖 풍경을 따라 어디론가 문화테라피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느릿한 걸음일지라도 따라 가보자. 그곳에 방전된 내 가슴에 활기찬 힘을 불어 넣어 줄 그 절제된 소소한 문화가 있을 것이다.



당진문화진흥기금 지원단체 문화·예술행사 일정



사업일자	시간	사업명	단체명	장소	비고
6월~10월	15시	한국시낭송기협회	사랑의향기가득한시낭송회		매월둘째주일요일3시
6월~12월		당진필색소폰클럽	당진필색소폰클럽과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매월
6월~12월		아리랑봉사단	당실병실웃음을나누는실버파워		매월2~3회
6월~12월		7080라이브스타	소년, 소녀가장들기자선공연	삼교호메인무대	매달4째주일요일
6월~9월	19시30분	(사)한국생활음악협회	금요음악회	당진문예의전당야외공연장	매주금요일
6월23일		당진B4밴드	당진시민과함께하는B4밴드라이브공연	당진문예의전당소공연장	
6월1일~6월30일		상록목향회	2018행복한동행목향연전	다원갤러리	
6월23일		(사)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	2018제13회찾아가는열린음악회	당진시필경사및심훈기념관	
6월23일		(사)심훈상록문화제집행위원회	심훈 청소년문예행사	당진시필경사및심훈기념관	
6월30일	15시	(사)선소리산타령충남지회	중요무형문화재제19호 선소리산타령충남지회정기발표회	삼교호야외공연장	

*일정 및 장소는 주최 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 원종순, 강종선 부부(면천면 죽동리)

중년의부부가행복하게사는비결



함께 공연보고, 악기 배우며 부부간 공감대 형성 당진에 이사와 '생활문화예술제' 보고 신선한 충격 받아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 중심의 가족 관계로 복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년의 부부들이 많다. 20여년 가까이 많은 부분을 아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단둘이 무언가를 해본 지 너무 오래된 것이다. 자녀가 떠난 집에 단 둘이 남겨진 부부는 '혼자인 듯, 혼자 아닌, 혼자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법. 그 실마리를 원종순, 강종선 부부에게서 찾았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줄곧 함께 공연을 즐겼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횟수가 줄어들 적도 있었다. 하지만 부부는 '둘이 같이 하는 시간'의 끈을 놓지 않았다.

부부는 모두 인천토박이다. 대도시에서 나고 자란 탓일까, 은퇴 후 삶을 고민하면서 줄곧 시골에서의 삶을 꿈꿨다. 그러다 강종선 씨의 언니가 살고 있는 당진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무엇보다 도시의 중심이 복잡하지 않고 여유가 느껴졌던 것이 좋았다.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사실 문화생활에 대한 건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서울로 (공연)보러 다니지 뭐'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인천 사는 친구들이 놀러오면 당진의 문화 공연에 대해 자랑하기 바빠요. 광역도시에서나 하는 대규모 콘서트부터 해외 유명 공연팀의 무대까지 당진에서 공연된다고 하면 다들 놀라는 눈치죠."

아내 강 씨의 말을 남편 원종순 씨도 거들었다.

"이사 오던 첫 해, 6월에 '생활문화예술제'를 우연히 구경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기타, 댄스, 밴드, 캘리그래피, 공예... 이렇게 많은 문화를 즐기며 사는구나! 참 좋더라고요!"

부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기며 사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더군다나 문화예술을 즐기며 사는 일반인들이 모여 축제를 열었다는 것에 감동까지 받았단다. 아마도 오랫동안 전문 직업 예술인들의 공연에 익숙한 도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엔 공연보러 서울 갈 새가 없어

요. 당진에서 하는 좋은 공연을 관람하기도 바쁘니까요. 특히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하우스 콘서트 형식의 무대도 너무 좋고요."(아내 강종선)

"제가 문화가 있는 날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요. 당진문화재단 수요일 공연처럼 알찬 무대는 없더라고요. 또 관객들의 수준도 높다고 봐요. 당진 사람들은 박수치고 호응하며 공연을 즐길 줄 알죠."(남편 원종순)

부부는 당진문화재단의 공연 중 '문화가 있는 날 - 천원의 행복', '씨네라이브', '당진시립합창단' 등을 애정하는 공연으로 꼽았다.

부부는 당진으로 이사 온 뒤, 함께 무

대에도 오른다. 하모니카 동호회 <당진 하모니>에서 함께 활동하는 덕이다. 남편 원종순 씨가 회장직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원종순, 강종선 부부는 "부부 사이에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지인들은 둘이서 매일 얼굴 쳐다보며 시골에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는데, 공연 하나를 함께 즐기는 것만으로도 둘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풍요로워 진다"고 말했다. 공연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공연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까지 합하면 길게는 일주일 넘게 공통의 관심사가 지속된다는 말이다.

"부부가 항상 같은 마음이기 어렵죠. 그런데 같은 관심사를 갖게 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할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어요."

원종순, 강종선 부부에게서 찾은 부부 중심의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공통의 관심사'를 통한 부부만의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이다.

글:서진원현



문화재단 | 김광진 예술교육팀장

밴드부소년에서당진문화예술교육이끝기까지 “문화시민을키우는교육환경만들고싶어요”



시민이큰재산이죠

그는 문화예술교육자가 지녀야 할 핵심역량으로 ‘창의성’을 꼽았다.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도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삶의 통찰을 길러주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선 교육자의 역량을 빼놓을 수 없다. 교육 프로그램별 실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풀 구축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교육과 전문영역을 두루 갖춘 사람을 뽑기 위해 다양한 교육강사경력 등 요소를 고려해 선발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학교현장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국민이 대상이다. 때문에 영역도 넓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도달한 시민들은 동아리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창출해 모든 당진시민들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거침없이 ‘수강생 발표회’를 꼽았다.

“40주 동안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많은 연습과 협업을 통해 행사를 함께 만듭니다. 저희는 공연장과 전시관을 지원하는 것이죠. 수강생들의 만족감이 높아요. 처음엔 전혀 못하다 실력이 누적되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교육팀에 대한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각 프로그램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팀원들은 음악, 연극 등 전문 전공자로 예술교육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자랑했다. 시민들과 가까이 늘 웃음 잃지 않고 적극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강생들도 열심히 활동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당진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학교시설은 타시도에서도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의 혜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관리자로서 운영하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좋습니다. 예술교육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초등학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가장 큰 재산이죠.”

팀장으로서의 소망은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넓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야말로 진짜 배움이자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핵심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지속가능한 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을 펼치기 위해 고민 중이다. 반면 개인적 소망은 소박하다. 차를 몰고 방방곡곡을 투어하는 게 꿈이다.

글 오수용당진문화재단경영지원팀
사진 박효경당진문화재단문화사업팀

남산은 당진읍의 작은 허파다. 남산의 상록탑에서 보면 붉은색 외벽의 건물이 보인다. 당진문화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다. 시민들의 문화 거점공간이자 문화시민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도량이다. 많은 시민들이 저마다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이곳을 드나든다. 누구는 그림을 배우기 위해, 누구는 악기를 다루기 위해, 누구는 연극을 하고 싶어..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꿈을 키운다. 예술학교 운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광진 예술교육팀장(55세)을 만났다.

체격이 좋아시작한악기와의만남

그는 서산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기악을 전공했다. 음대를 가게 된 배경이 극적이었다.

“서산 서령중·고등학교 재학당시 밴드부를 했어요. 중학교시절 선생님이 밴드부 들어가면 장학금 준다고 해서 들어갔죠. 당시 체격이 좋아 수자폰(Sousaphone/밴드에서 저음역을 담당하는 대형 금관악기)이란 악기를 맡게 됐어요. 30~40kg나가는 악기를 왼쪽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지금도 어깨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때까지도 음악은 취미활동 정도였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활동하다 공부를 시작했죠. 육사시험 떨어지고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러던중 선배가 다니던 음대에 특수악기분야(튜바) 2명을 뽑는다는 지원해보라고 권했죠.”

당시 대학 갈 형편이 안됐다. 특수악기는 구경도 못한데 레슨도 한번 못 받아 깊은 고민을 했다. 선배가 악기를 구해줘 한 달간 맹연습을 한 후 시험을 봤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합격소식을 받았다. 입학 후엔 학자금 조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 총학생회 임원을 맡아 바쁘게 보냈다.

“대학 3학년 때 교수의 추천으로 전공을 기약으로 했어요. 기악과는 교직이수가 안됐어요. 교육과로 전과하려고 했는데 규정상 안된다고 해 교육과목 20학점을 채우려고 고생했죠. 게다가 제대 후 국악이 전공필수로 바뀌어 이것도 공부해야 했죠.”

어떻게 고향 부근인 당진에 정착했을까?

“졸업 후 친구들은 교향악단으로 가기도 했는데, 저는 송악중·고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해 당진으로 왔어요.”

교직을 위해 1989년 당진으로 내려온 그는 현재 30여 년간 살고 있다. 음악교사를 한 기간은 20년.

“시골이라 아이들이 순박했죠. 학교 관사를 고쳐 10년 동안 관사에서 살았어요. 아이들이 차시간이 없어 집에 못 가면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고무마도 찌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재미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경운기에 김장배추를 가득 싣고 오기도 했죠. 지금도 고맙다고 연락와요. 기억나는 제자도 많고, 생각하는 제자도 많습시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 진출해 사회에서 자기역할 하며 잘살고 있어요.”

교사생활은 그에게 교육에 대한 뚜렷

한 철학을 안겼다. 삶의 질과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 줄 수 있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쟁중심, 이기적이고 출세지향주의의 삶과 교육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확신했다.

20년 음악교사로 명예퇴직하고 2009년부터 읍내동에서 하모니 악기사와 뮤직아카데미 음악학원을 운영했다. 학원을 정리하고 2014년 12월 당진문화예술학교 교감을 시작으로 재단과 인연을 맺었다.

예술학교와의인연

그동안 교직생활로 쌓인 교육 경험을 학교의 다양한 예술교육과 연결해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교육팀장을 맡으며 예술학교 운영 기반을 잡고 시민들과 연결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했다.

“다양한 예술분야를 이해하려면 꾸준한 노력과 역량이 필요해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그런 이해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예술학교는 문화시민을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죠.”

그는 예술학교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도 시민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민예술아카데미, 영재아카데미, 자유학년제, 예술강사아카데미, 문화예술체험교

실이다. 시민예술아카데미는 전체 36개 강좌가 진행 중이다. 음악교실, 아트갤러리, 댄스,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저렴한 수강료로 수강생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1인 3개 강좌까지 신청가능하며, 다양한 시민혜택을 위해 수강기간을 3년 까지로 제한한다. 현재 540명의 수강생이 활동하고 있다.

자유학년제 프로그램도 주목해 볼 만하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지역학교와 연계해 진행했다. 올해도 3개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연극, 밸리댄스, 클래식기타, 바이올린, 한국화 등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학교의 만족도가 높다.

“동아리공간지원, 시민오케스트라단원, 아카데미 수강생 등 일주일에 천여명 이상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창단한 시민오케스트라의 경우 연습공간도 생기고 활용할 수 있어 금상첨화예요. 시스템에 의해 지원해주기 때문에 운영도 안정화 돼 있죠.”

수강생들은 초·중·고급과정까지 마무리한 후 동아리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중점에 두고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장르별 다양성을 모두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 2개 반을 운영하다 보니 수강생 격차와 통솔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기능’보다는 ‘창의’를 지향하기에 교육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이 부분을 집중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야기가 있는 당진 마을 여행 4 - 석문면 초락도리 푸레기마을

농촌과어촌사이, 푸레기마을

서산과 맞닿은 당진의 끝자락에 푸레기마을이 있다. 푸레기마을 초락도리는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된 마을이다. 육지가 된 지 30여년 이 지난 지금도 매년 5월이면 마을은 다시 섬이 된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그대로 머금은 채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 무엇하나 걸릴 것 없이 시원하게 펼쳐진 논배미.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들어찬 논물과 그 끝자락 즙음 동산을 이루듯 모여앉은 마을이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바다위 섬이다. 미세먼지도 없이 맑은 5월의 어느 날, 마을을 찾았다. 초여름 푸레기마을은 농촌과 바다, 대호호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했다.



다양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과 팜스테이 운영 한때 섬이었던 마을에서 만끽하는 농촌과 자연 풍경

‘초락’, 떨어진 풀잎이 섬이 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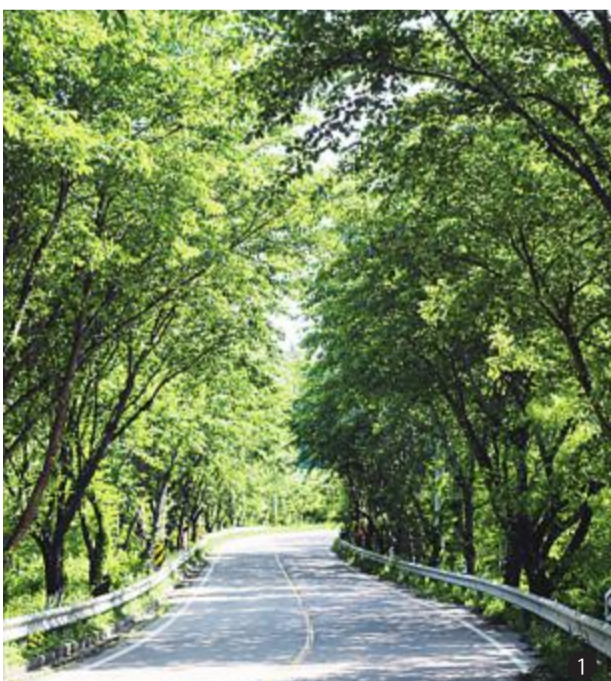
1980년대 대호방조제 축조로 바다가 막히면서 초

락도는 육지가 되었다. 섬 이름이 그대로 마을 지명이 된 초락도리는 풀과 인연이 깊은 동네다. 푸레기마을 이라고 불리게 된 어원은 정확하지 않다. 풀잎하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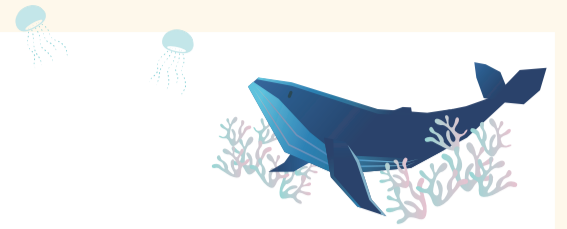
떨어져 섬을 이루었다는 전설이 있는가하면 어느 양반이 이곳에 낙향하면서 떨어질 낙(落)자를 써서 마을명을 지었다는 설도 있다. 이밖에도 초락도리는 풀떼기, 청학동, 초호리, 초락지, 초라지 등으로 불렸다. 모내기가 한창인 너른 논들을 내려다보며 마을길을 걸었다. 줄맞춰 춤이라도 추는 양 바람결에 제 몸을 흔드는 어린모들을 보며 저것도 초락(草落)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약쑥이 자라는 마을

전설이 마을의 미래를 예측한 것인지, 마을의 지형을 보고 전설을 만들어낸 것인지 몰라도 지금의 초락도를 이야기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풀’이다. 마을의 특산물인 바로 ‘약쑥’이기 때문이다. 예부터 단오날 약쑥은 그 약효가 1년 중 가장 좋다고 하였다. 단오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5월, 초락도리 마을길에서 어른 눈높이만큼 자란 약쑥을 만날 수 있다.



1. 봄이면 벚꽃이 휘날리는 푸레기마을길.
2. 푸레기마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앞 정자에 오르면 평화로운 마을 전경이 펼쳐진다.
3. 5월이면 모내기를 앞두고 다시 섬이 되는 푸레기마을 전경.
4. 마을 곳곳에 식재된 약쑥을 살피는 김수정 사무장.



썩음을 손으로 훑어 코에 가져다대니, 알싸한 썩향이 진하게 베어난다. 초락도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소득사업으로 약썩을 함께 재배해 판매하고 있다. 섬이던 시절에는 농사라하면 밭농사가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게 어업에 종사했다. 육지가 된 이후에는 간척지로 얻은 논농사가 마을 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이 되었다. 하나 여전히 마을 할머니들은 도비도 바지락 양식장에서 조개를 캔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바다가 모두 육지가 되었지만, 마을과 바다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저렴한 농촌민박

농촌과 어촌 풍경을 모두 간직한 초락도리는 농어촌체험마을로도 유명하다. 초락도리는 대호만과 삼봉호라는 방대한 호수와 서해바다, 농촌 풍경을 한 마을에서 만날 수 있다. 도

시 사람들에게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행지인 셈이다. 초락1리와 초락2리를 합쳐 푸레기마을이라 부른다. 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푸레기마을의 대표 체험거리로는 갯벌체험과 두부만들기, 약썩을 이용한 천연비누, 개떡만들기 체험 등이 있다.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춰 마을을 찾으면 고구마나 감자캐기 체험도 가능하다.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은 김수정 푸레기마을 사무장이 주로 맡아 진행한다. 단체 방문객이나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초락도리는 주변 마을에 비해 젊은 인구가 많다. 거기에 오랫동안 체험마을을 운영하며 도시민들을 만나온 덕분에 주민들 모두 열린 마음이라는 게 김수정 사무장의 말이다.

김수정 사무장은 "마을을 방문하는 단체의 특성에 맞춰 농어촌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며 "올해는 특히 피자 만들기, 약썩을 이용한 뜬 체험도 준비 중이고, 앞으로 대호만을 비롯해 마을의 너른 논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철새 탐조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푸레기마을은 팜스테이마을로도 지정이 되어 숙박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관광지 숙박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특히 여름밤이면 풀벌레와 개구리가 노래하는 농촌마을에서 하룻밤을 묵는 낭만도 즐길 수 있다. 얼마 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에서도 정결분야 1등급을 받았다.

마을을 한 바퀴 휘돌아, 푸레기마을 사무실 앞 정자에 올랐다. 바다와 호수가 코앞이어서 일까, 높은 지대에 올라앉은 마을의 지형 때문일까. 이른 더위에도 바람이 제법 시원하다. 정자에 오르니 몇 시간이고 마냥 마을의 풍경을 즐기고 싶다. 초락도는 그렇게 낯선이의 마음도 내려놓게 만들었다. 마을을 둘러싼 자연이 그렇다. 도시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며 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도 그렇고.

글, 사진 우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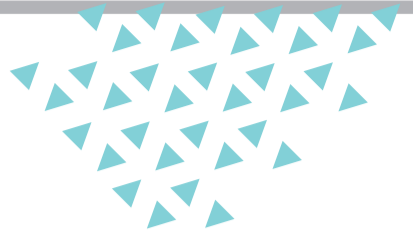
푸레기마을
충남당진시 석문면 초락1로 147 (초락도리)
<http://www.041-353-5008.bestbz.com/>
문의 041-353-5008, 010-2665-6032



1. 2 푸레기마을을 찾은 서울에서 온 가족들이 도비도에서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2. 아이들은 게며 바지락을 찾을 적마다 연신 환호를 질렀다.
3. 푸레기마을의 유일한 학교, 초락초등학교. 현재 초등학생 11명, 유치원생 7명이 등교하고 있다.
4. 대호만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여행객들. 노을이 지는 대호만은 사진촬영 명소로도 유명하다.



당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 소리향



“오카리나로더많은봉사하고싶어요”

취미로 시작해 회원 모두 지도사자격증 획득

취미로 시작한 악기 덕에 인생이모작을 멋지게 일궈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소리향 동호회 회원들이다.

“처음에는 회원들 모두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에 시작했어요. 헌데 하면 할수록 오카리나의 매력에 빠져들게 됐죠. 지금은 회원들 모두 오카리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회원들 중에는 학교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취미가 직업이 된 거죠.”

김낙순 회장은 “소리향이라는 동호회 이름도 오카리나의 밝고 아름다운 소리로 주변을 향기롭게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회원들의 실력이 늘어나면서부터 지역 곳곳을 다니며 향기로운 음악을 선사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리향은 당진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당진생활문화예술제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문화공연, 축제 무대에서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음악으로 봉사하자는 회원들의 뜻이 모아져, 평상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연주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회원들은 최근에 동참한 등꽃길 연주회가 보람있

었다고 꼽았다.

“원당초등학교, 원당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오카리나를 연주해줬어요. 발걸음 가볍고 즐겁게 학교에 가라는 뜻으로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하더라고요.” (회장 김낙순)

6년차에 접어든 소리향 회원 7명은 한 사람의 일탈도 없이 원년멤버 모두 그대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세종시로 이사 간 이해춘 씨도 무대에 함께 오를 정도다. 회원들은 2013년 4월, 당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으로 처음 만났다. ‘오카리나’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만 같을 뿐, 나이도 직업도 음악에 대한 지식수준도 제각각인 사람들이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오카리나를 배우며 돈독한 정을 다졌다. 40대부터 60대까지 주부들로 구성된 회원들의 두터운 화합은 자연히 무대에서도 멋진 하모니로 이어졌다.

회원들 중 막내인 박소현 씨는 “오카리나는 천상의 소리, 자연의 소리라고 부를 만큼 그 소리가 맑고 아름답다”며 “특히 우리 동호회는 오카리나를 감상하는



관객들의 취향을 고려해 오카리나 전용 연주곡부터 트로트,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정미숙 총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며 보람을 느낀다”며 “취미로 시작한 오카리나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손양순 회원은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악기가 오카리나 같다”며 “휴대도 간편하고 소리가 아름다워서 음악을 연주하는 기쁨도 크고, 무엇보다 회원들과 함께 연주하고 연습하며 친교도 다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소리향은 언제나 신입 회원들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6년차 회원 모두 오카리나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특성상, 신입회원의 연주 수준이 회원

들과 비슷해야 한다. 소리향 회원들은 매주 한번씩 모여 연습을 하고 있다. 한편 초창기부터 회원들의 지도를 맡았던 이은주 강사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소리향회원: 회장 김낙순, 총무 정미숙, 회원 박소현, 손양순, 장선임, 이해춘, 윤순분
■기입 및 공연문의: 010-9105-2907 (회장 김낙순)



당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 장구치는 아이들

“친구들과다같이잘했을때,제일기뻐요”

2년차 초등학생 장구동아리, 지역 각종 무대에서 인기 “장구 치며 스트레스 풀고, 협동심, 책임감도 배워요”



“처음에는 떨리긴 했는데요. 이제는 안 떨리고 공연을 잘 끝내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김주아)

“장구를 칠 때면 어딘가 시끄러운 곳을 뛰 어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이 신 나고 좋아요.” (이예주)

“휘모리 장단이 제일 좋아요. 잔잔하다가

점점 빨라지는 장단이 더 멋지고 재밌게 느껴져서요.” (김란아)

“가족들과 친구들이 공연을 보고 멋있다고도 하고 잘한다고도 해줬어요. 뿌듯했죠.” (오은채)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장구가락을 안 틀 리고 다 맞았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

세은)

“친구들이 다 같이 잘 쳐서 두 번 정도 만 에 가락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기분이 최고 예요.” (장채원)

“얼마 전에 징, 쥘거리, 북, 장구까지 풍물 을 다 배웠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장승욱)

“친구들과 장단을 잘 맞춰서 치고 나면 기 분이 좋아요.” (강건우)

‘장구 치는 아이들’의 말이다. 초등학교 3, 4학년. 이제 갓 10살, 11살이 된 어린이들의 이야기다. 아이들에게 장구를 치면서 언제 제일 기뻐는지, 어떤 기분인지를 물었다. 돌아온 답변이 놀랍다. 아이들은 ‘함께 잘 해냈을 때, 다 같이 느끼는 성취감’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는 한 팀’이라는 생각 없이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다.

김지는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이 장구를 배우고 무대에 오르면서 이전보다 성취감이 나 자신감도 커졌지만 무엇보다 큰 성과는 스스로 팀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며 “8명의 친구들이 스스로 의견을 조율하고 공연을 준비해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동아리 활동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유수진 학부모 역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책임감과 함께 협동심도 길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구 치는 아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송산종합복지관에서 모집한 장구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국악인 박경석 전 예총 당진지부장이 강사로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처음에 학부모들은 학원도 많지 않은 송산면에서 아이들에게 국악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정도만 생각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 4개월만에 당진청소년한마당축제에서 공연을 하게 됐다. 학부모들은 저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연습량과 큰 무대가 사실 걱정이었다.

김지는 대표는 “정작 엄마들의 걱정과 달리 무대에 오를 아이들의 마음가짐은 다르더라”며 “무대에 오르기 전 심장이 뛰다며 걱정하던 아이들이 공연이 시작되자 집중하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무대가 끝난 뒤에는 서로 모여 오늘은 잘했다, 혹은 어느 부분은 아쉬웠다며 스스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년 차가 된 지금은 실수를 하더라도 무대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 ‘장구 치는 아이들’은 매주 송산종합복지관 연습실에 모여 박경석 강사에게 장구를 배우고 있다. 박경석 강사는 “평소에는 개구쟁이들이지만 연습을 할 때에는 열심히 하는 무대 체질”이라며 제자들을 칭찬했다.

아이들은 연습 외에도 당진생활문화예술제, 순성매화빛꽃축제 등 지역의 각종 축제 무대에 올라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회원: 장채원(유곡초 4/부흥남귀, 모장길수), 김란아(유곡초 3/김지은, 김성웅), 오은채(유곡초 3/유수진, 오세진), 이세은(유곡초 3/정효진, 이정우), 이예주(유곡초 3/공연하, 이만기), 김주아(유곡초 3/안희영, 김창규), 강건우(유곡초 3/윤민자, 강석환), 장승욱(당진초 3/송재순, 장현수)

문화유산으로 보는 당진 - 4 (마지막회)

‘당진의소리’를 아시나요?

‘또 한 침 쪼네’, ‘방아소리’, ‘깍쟁이타령’....

〈당진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4〉

당진문화는 어디에서 시작돼 어떤 과정을 거친 걸까요? (당진문화재단 소식지)가 당진문화의 뿌리를 찾아나섭니다. 새로 쓰는 당진문화유산사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말 당진문화재단이 발행한 『한권으로 읽는 당진문화유산』(필진: 김추윤, 신양웅, 윤성의, 이인화 사진: 최영근)이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발췌·정리해 당진 문화의 정수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4회는 마지막 편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읽기 쉽게 일부 임의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당진의소리’입니다.

- 제1회 매항비(埋香碑) - 제2회 안섬풍어당굿놀이(충남무형문화재 35호) - 제3회 당진 농악과 지신밟기 - 제4회 당진의소리 ‘농요’(마지막회)

당진의농요

민요는 민중들의 생각을 시와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민요는 민중들의 생활사를 엮은 것으로 민중들의 사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여 노래라는 우아한 형식으로 표현한다. 노동요는 오랜 세월동안 수없이 많은 전달과정을 겪으며 세련되어지고 다듬어졌다. 그러기에 양적으로도 풍부하고 다채로워졌다.

이제까지 당진지역에 전승되는 농업 노동요는 주로 논농사와 관련된 노동요였다. 실제로 논농사와 관련 노동요가 주로 전승되고 밭농사와 관련된 노동요는 거의 없다.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와 벼를 베고 벼가리 세우며 벼 단세기, 벼 바심하기, 나비질하기, 섬에다 말 되기 등과 두레로 물 품기, 가래질하기, 말 박기 등 각 단계에서 노래가 세분되어 많이 전승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노래 없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 반드시 노래가 있어 흥취를 돋우고 그 흥취로 일을 했다. 노동요는 우리 민요 가운데 전통적인 색채가 가장 농후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작업에 민요가 있었다는 점은 가장 큰 특징이다.

여성들이 부르는 부요(婦謠)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우수하다. 부요의 내용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들의 처지와 염원을 다양한 형식과 풍만한 서정으로 노래하였다. 배틀가, 방아타령, 물레타령, 길쌈노래, 시집살이요, 바느질 노래, 사친(事親)요, 애정요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배틀가, 시집살이요, 물레타령, 방아타령은 독특한 서정미 및 그 진실성, 아름다운 운율, 소박한 언어, 정제된 형식 등 문학적인 미를 발한다.

양적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요와 질적으로 우세한 부요 민요를 밑바탕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길러온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하겠다.

〈모찌는 소리〉 당진지역에 전하는 모찌기 소리는 ‘또 한 침 쪼네’

모찌는 소리는 모판에서 모 찌며 부르는 소리다. 모심기 전 모를 찌기 시작하는데 못 짚을 들고 모판에 달라붙

어 두 손으로 모를 잡아당겨 흥덩흥덩 물에 흔들며 뿌리에 붙은 흙을 씻어내며 한쪽에서 ‘철두러쿵 철두러쿵 모 한 침 쪼네’하고 소리를 하면 저쪽에서 또 ‘철두러쿵 철두러쿵 하더니만 여기 또 한 침 쪼네’하며 두 손아귀에 찌어진 모를 들고 벼짚으로 묶으면서 소리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모판에서도 그 소리를 받아 허리를 펴며 모 한 침을 쪼며 소리를 받는다. 이렇게 여럿이 모를 찌다가 ‘모 한 침을 찌고 모 한 침 쪼네’고 하는 것이다. 실제 제대로 된 두레패는 서로 사설을 교환하며 소리

올마다 두레가 조직되어 집단으로 농사일을 하게 된다. 노동과 더불어 소리의 종류도 갈라진다. 특히 논농사는 모를 심고 가꾸는 작업과 더불어 집단으로 할 일이 많다. 하루 이를 사이에 끝나는 일도 아니어서 일정한 농도에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며칠씩 계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두레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두레는 으레 풍물패들이 따르게 된다. 이들은 질편한 가락과 함께 익살스럽고 재치 있고 능숙하게 해대는 소리메김을 잘 한다. 당진에는 모심는 소리가 많을 법도

로 모심고 얼마안 되어 매는 아시매기, 중간에 두벌매기, 만물소리로 구분된다.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 번을 하는 것이 상례다. 초벌 논매기는 아시매기 소리, 손글소리(손으로 글 쓰는 소리)라고 하며 깍쟁이 타령이라는 소리가 고대면과 석문면 등 바닷가 쪽에서 불렀다.

〈두벌매기 소리〉 당진의소리 중 가장 많은 소리

당진의 소리 중 가장 많은 소리가 두벌매기다. 노동에서 두벌매기가 가장

처럼 눈을 갈아 모를 심고 얼마안 되어 풀을 매기에 물렁한 눈에 손으로 풀을 훑쳐 땅에 푹푹 박으며 하던 소리다.

〈벼단 세는 소리〉

벼가리를 치면서 벼단을 센다. 벼단을 논두렁에 들어다 놓으면 이를 세워 벼줄가릴 친다. 벼단을 기댈 수 있게 말뚝을 박고 벼단을 세우는데 지주는 산 벼를 뽑아 들고 앉아 ‘열이요’하고 벼단을 셀 때마다 벼단의 통계를 낸다. 벼줄가리를 치는 사람도 열 단을 세우고 나서 벼단의 밀동가리 일부를 치켜 세우는데 그렇게 벼짚지의 수를 세어 총수를 알아두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숫자를 세는데도 가락이 있었다.

〈타작하는 소리〉

벼를 베어 벼가리를 치고 벼 바심을 한다. 벼 바심(벼단에서 벼를 털어내는 것)은 대개 절구나 도구통에 후려쳐서 떠낸다. 벼단을 1미터정도의 끈으로 감아 절구통에 메치면서 소리를 한다. 대부분 각자 태질을 하니 소리가 없다. 정미면 덕마리에 소리의 형태가 남아 있다. 소리꾼이 소리를 메기면 ‘예게 차’로 받는다. 사설은 소작농의 삶을 생각해 슬슬 치러든가, 슬슬 돌리라, 눈치 있게 치러든지 하면서 작업을 지시한다.

〈벼 부치는 소리〉

벼 부치는 소리는 바심을 다 하고 나서 바람에 벼를 들일 때 부른다. 개상질(벼단이나 보릿단 따위를 개상에 메어쳐서 이삭을 떨어내는 일)로 떨어졌기에 흙 범벅이 된 벼를 죽가래로 공중으로 휘 던지며 사설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예행-’하고 소리를 받는다. 그러면 ‘예행-’하고 소리를 받으며 심심하고 반복되는 일의 지루함을 덜어 흥겨움으로 바꾼다. 이런 벼 들이는 소리가 당진에 많이 전승하지는 않으나 농부들이 수확의 기쁨과 노작의 마지막 단계인 알곡을 추스르며 가볍고 경쾌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발췌·요약〉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를 하기도 하는데 선 소리꾼이 사설을 늘어놓으면 여러 사람이 제창으로 후렴을 받는데 그러면 힘들고 반복되는 지루함을 풀고 흥겨움으로 일을 해갈 수 있는 것이다.

충남지역은 모찌기 소리가 크게 ‘뭇치세’형과 ‘또 한 침 쪼네’형이 있다. 당진지역에 전하는 모찌기 소리는 ‘또 한 침 쪼네’형으로 예산이나 서산, 홍성 등 서북부지역 즉 내포지역에 전하는 모찌기 소리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내륙 지역과는 달리 석문면 난지도리에서는 모찌기 소리가 한 소리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모심는 소리〉 당진지역 모심는 소리는 ‘방아소리’

농사는 많은 품이 들고 수많은 일손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기에 대개 마

어려운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두벌매기는 호미로 땅을 파 있어야 하니 힘들고 고단해 마을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야만 했다. 당진에서 두벌매기 소리는 ‘얼카덩어리’형과 모심을 때 부르던 ‘방아타령’형이 공존하고 있다. 충남지방은 ‘얼카덩어리’형, ‘얼카산이야’형, ‘에하 울러를 가세’형이 혼용되어 불리어지고 있다. 당진의 ‘얼카덩어리’형은 충남서북부 황해안 연접지역인 홍성, 서산과 더불어 불리어지는 소리다. 이 소리는 주변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얼카덩어리 뒤에 다른 말이 붙어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매는 소리〉 고대면, 석문면의 논매는 소리 ‘깍쟁이타령’

논 농사소리는 구연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당진에서는 논농사가운데 모를 찌서 심고 김매는 일이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소리와 가락이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다.

논매는 소리는 논을 잡초를 호미로 매거나 손으로 훑치면서 부르는 소리

어려운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두벌매기는 호미로 땅을 파 있어야 하니 힘들고 고단해 마을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해야만 했다. 당진에서 두벌매기 소리는 ‘얼카덩어리’형과 모심을 때 부르던 ‘방아타령’형이 공존하고 있다. 충남지방은 ‘얼카덩어리’형, ‘얼카산이야’형, ‘에하 울러를 가세’형이 혼용되어 불리어지고 있다. 당진의 ‘얼카덩어리’형은 충남서북부 황해안 연접지역인 홍성, 서산과 더불어 불리어지는 소리다. 이 소리는 주변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얼카덩어리 뒤에 다른 말이 붙어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매는 소리(만물소리)〉

만물소리는 초벌매기소리와 같은 소리다. 그만큼 벼가 자라 잡초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하는 소리다. 초벌매기

올여름이 사업!

문화동아리 역량강화 사업

지역 문화동아리 역량강화 지원

문화동아리 주간사업 선정 동아리 대상
전문강사 파견해 동아리 맞춤형 특강 실시



당진문화재단이 지역 내 문화동아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했다. 2018 문화동아리 주간사업에 선정된 동아리 중 참가를 신청한 29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사업은 동아리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교육 강사를 파견해 동아리들이 평상시 쉽게 배우지 못했거나 갈증을 느꼈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시각 예술, 체험분야의 경우 현장체험 교육도 가능토록 했으며 역량강화 교육 신청 단체에 한해 필요할 경우 연습장소

도 제공했다. 장구치는아이들의 감지는 학부모 대표는 "그동안 장구만 배웠던 동아리 아이들이 장구 외에 북, 징과리, 징 등 사물놀이에 대한 특강을 받을 수 있어 무척 좋아했다"며 "당진문화재단의 역량강화 사업 덕분에 장구 외에 사물놀이 에 대한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진시민 합창단은 합창발성강의에 대한 교육을, 알리스 응원단은 안무교육과 공연 기획을, 독수리오형제 합주단은 무대

매너와 표정연기 등, 평상시 동아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진문화재단은 동아리 활동에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전문강사를 섭외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당진문화재단은 2016년에는 16개 단체, 2017년에는 23개 단체에 대해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자유학년제 사업

학교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당진문화재단,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석문, 송악, 신평중학교에서 6개 강좌



당진문화재단이 중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지역 학교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18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적성 및 특기를 찾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당진문화재단이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지역 내 3개 중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배달강좌 형식으로 운영됐다. 석문중학교는 바이올린, 송악중학교는 라인댄스(민속무용), 신평중학교는 한국

화 강좌를 각각 운영했다. 특히 각 분야별 이론과 실기가 결합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실감나는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편 시민예술아카데미 참여강사를 우선으로 선정, 당진문화예술학교만의 예술강사 인력풀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문화예술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단위의 학교를 중심으로 강사를 파견해 교육복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상, 하반기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내년 1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 올여름이 공연! 시네마 클래식 KOREA!

영화음악으로 즐기는 오케스트라 공연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국내외 유명 영화 OST 연주

올여름에는 시원한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음악으로 더위를 잊어보자. 당진문화재단은 6월 15일 저녁 7시30분 당진문화예술평대공연장에서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만나는 시네마 클래식 KOREA!를 준비했다.

이날 공연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쥬라기 공원>을 비롯해 영화 <마이페어레이디>, <캐리비안의 해적> 등 세계 유명 영화의 OST뿐 아니라 국내외 관객에게 사랑 받은 한국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올드보이> 등의 OST도 연주될 예정이다.

영화 OST에 담긴 추억 속 장면을 떠올리며 쉽게 접하지 못했을 오케스트라의 영화

음악 연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김광현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박지홍과 테너 이영화가 무대에 오른다.

김광현 지휘자는 현 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대구시향, 일본 규슈 심포니,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니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온 바 있다.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창단 이래 지난 30여년간 국내외에서 매년 90회 이상 연주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교향악의 위상을 높여왔다.

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7년부터 국립극장과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의 정규 레퍼토리에 협업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지정되어 예술의전당에 자리 잡게 되면서 대한민



국의 대표적인 극장 오케스트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위한 전문적인 하우스 오케스트라로서 발레, 오페라 음악에 남다른 전문 공연경력과 노하우

를 가지고 있다.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법인 승인,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면서 민관 문화예술의 거버넌스 모델이 되고 있다. 현

재 약 100명의 임직원과 연주단원들이 2명의 상주 작곡가와 함께 한국 공연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진문예의전당, 문화예술상(문예회관상) 선정



당진문예의전당이 제11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의 문화예술상(문예회관상)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동안 공연예술활성화를 통해 전문공연장으로 자리잡고, 시민문화활동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페스티벌의 문화예술상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문예회관상, 문예회관인,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를 부분별로 나누어 시상하는 시상식이다. 시상식은 제11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되는 2018년 6월 18일(월) 19시에 해비치호텔&리조트 야외정원에서 진행된다. 공연 유통 활성화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국내·외 관광활성화 촉진 등을 위해 진행되는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은 전국 201개 문예회관과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공연장 관련 업체 등 전국의 문화예술 관계자와 종사자, 제주도민, 관광객 등이 함께 만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축제다. 올해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해비치호텔&리조트와 제주주요지역에서 펼쳐진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



6월 1일(금) 오후, 당진문화재단 사무실에서 피자잔치가 벌어졌다. 이 피자는 5월 30일(수) 저녁 문화재단이 주최한 '문화가 있는 날-스크린뮤직' 공연을 관람한 시민이 '너무 좋은 공연이었다며 감사의 뜻으로 보내왔다. 재단 직원들은 "떡이 본 피자 중 가장 맛있는 피자"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브랜드공연 씨네라이브

5월 (오페라의 유령)



지난 5월 24일 5월 브랜드공연 씨네라이브 '오페라의 유령'이 공연됐다. 이번 공연은 유희성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씨네라이브는 뮤지컬 및 음악영화 상영과 더불어 라이브 음악 및 댄스, 연극 등을 병행하는 신개념 콜라보 공연이다. 당진문화재단은 매달 특수직업군, 문화배려계층 등을 특별대상으로 선정해 공연에 초대하며 전석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4월 (맘마미아)



4월 26일 씨네라이브 <맘마미아>가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공연됐다. 김혜진, 윤담, 김가은, 김가희, 김성재 등이 출연한 이번 공연은 관람 연령 제한없이 모든 객석 무료로 감상할 수 있었다. 무대에는 영화 <맘마미아>의 대표곡 Mamma Mia, Dancing Queen, I have a Dream 등이 어우러진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다.

4월 문화가 있는 날

시베리아에서 온 아름다운 선율 '시베리안 비루투오지' 특별공연



4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립 바이올린 앙상블 '시베리안 비루투오지'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4월 25일(수) 열린 이날 공연의 주인공 시베리안 비루투오지는 시베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러시아 사하공화국정부의 국립 앙상블이다. 1994년 창단된 이래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세계 23개 나라에서 2천여회 이상의 음악회를 가졌으며 7번의 여류 국제 콩쿨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색소폰리스트 심상중 교수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랐으며 Moderator 노태철 교수가 함께했다.

이날 시베리안 비루투오지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디베르티멘토 Kv.136 라장조,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라 단조 등 12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키즈 스테이지

쿠키도 만들고 미술소도 보는 공연 4월 '쿠키매직컬 - 요리하는 미술사'



지난 4월 7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맛있는 쿠키도 만들고 신나는 미술소도 관람하는 '쿠키매직컬 - 요리하는 미술사'가 공연됐다.

이번 공연은 특히 가족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꼬마 관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쿠키매직컬 - 요리하는 미술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요리와 미술을 접목한 체험형 공연이다. 관객들이 직접 쿠키를 만들어 먹어보고, 미술 공연을 본 뒤 직접 미술을 배워보는 시간도 진행됐다.

키즈스테이지 공연은 당진문화재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공연이다.

5월 5일 열린 키즈스테이지는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거리공연으로 개최되었다. 찾아가는 공연은 다이ске의 스트리트 서커스와 전통타악 '아작'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스트리트 서커스 연기자 다이ске는 이날 요술풍선만들기부터 외발자전거, 저글링, 외줄타기, 마임 등을 통해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이후에 공연된 전통타악 '아작'의 공연은 생활 속에서 흔히 버려지는 쇠강통, 화학약품통, 주방용품, 에어컨 통풍기 등으로 재활용해 만든 악기를 활용해 소음이 음악이 되는 새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5월 찾아가는 키즈스테이지 어린이날 기념, 특별공연으로 진행



매달 키즈스테이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당진문화재단이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보다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는 기회를 마련했다. 5월 5일 열린 키즈스테이지는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거리공연으로 개최되었다. 찾아가는 공연은 다이ске의 스트리트 서커스와 전통타악 '아작'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스트리트 서커스 연기자 다이ске는 이날 요술풍선만들기부터 외발자전거, 저글링, 외줄타기, 마임 등을 통해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이후에 공연된 전통타악 '아작'의 공연은 생활 속에서 흔히 버려지는 쇠강통, 화학약품통, 주방용품, 에어컨 통풍기 등으로 재활용해 만든 악기를 활용해 소음이 음악이 되는 새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 자극



유명 그림책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가 뮤지컬로 당진을 찾았다. 6월 키즈스테이지 공연으로 마련된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공연은 꼬마 관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다. 두더지의 소심한 복수로 결말을 맺는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원작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18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평에서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 당진문화재단-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주최 대외협력 공연전시사업



지난 4월 25일 신평문화스포츠센터에서 무성영화 '이수일과 심순애'가 공연됐다.

이번 공연은 당진문화재단이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으로 추진했다. 당진문화재단은 지역 내 역량있는 기관 또는 문화예술관련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양질의 우수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최영준 배우가 무성영화 '이수일과 심순애'의 번사역을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했다.

'한글, 한지에 물들다' 김준섭 작가 초대전 2018 이시대의 당진작가전



이 시대의 당진작가에 선정된 김준섭 작가의 '한글, 한지에 물들다'전이 지난 4월 6일부터 일주일간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개최됐다.

당진문화재단은 지역 미술계 발전에 기여한 원로 작가를 추천해 업적을 기리고 시민에 알리므로서 지역 미술계의 발전과 전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시대의 당진작가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전시는 지난해 선정된 김준섭 작가의 전시로 진행됐다. 김준섭 작가는 이번 초대전에서 전통 망사 한지를 이용해 한글의 닿소리, 홀소리 문자를 작가의 주관적으로 해석한 최근작을 선보였다.

"즐겁게 놀면서 풍경을 즐긴다" 서진석 작가의 '락유-정경(樂遊-情景)' 2018 당진 올해의 작가전



서진석 작가의 '락유-정경(樂遊-情景)'이 2018 당진 올해의 작가전으로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열렸다. 당진문화재단은 당진 올해의 작가전에 서진석 작가를 선정,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초대전에서 서진석 작가는 즐겁게 놀면서 풍경을 즐긴다는 의미의 '락유-정경(樂遊-情景)'을 선보였다. 전시회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양적 사유를 느낄 수 있는 한국화 50여점이 공개됐다. 서진석 작가는 1991년 대전에서 첫번째 개인전을 가진 이후 2017년 네 차례의 개인전과 아트페어 참가 등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작품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별별동지 12개 단체 선정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당진문화재단이 2018 예술단체 창작스튜디오 지원사업 별별동지 지원단체로 12개 단체를 선정, 발표했다. 당진문화재단은 당진시민으로 구성된 관내 전문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신청받아 12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호수시문학회, 당진시예술소년소녀합창단, 라온, 백호동이2010, 당진소년소녀합창단, 당진시민합창단, 어린이책시민연대당진지회, 당진청소년오케스트라, 당진아트챔버, 어울림 아코디언, 줌마타, 타타타 등 12개 단체다.

2018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작품공모

지역문학인의 창작 의욕 고취와 당진문학계 활성화를 위해 「2018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개최합니다. 역량있는 지역 문학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기간 2018. 04. 17. ~ 08. 04. 모집분야 시, 소설, 아동문학, 희곡 (미발표 창작물)
접수기간 2018. 07. 24.(화) ~ 08. 04.(토) 문의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팀 350-2932

2018년 문화의전당 함께하는
지방교육 문화공감사업

2018년 문화의전당 2018 그랜드콘서트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만나는
시네마 클래식 KOREA!

2018. 6. 15 FRI 19:30
당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지휘 김광현 | 소프라노 박지훈 | 테너 이영화

티켓 유석 2만원 / S석 1만원 | 문의 041-350-2911~4 | 예매 www.dangjinart.kr

공연 • 문화의전당 4회 - 예술인복지비연방 적용 30% • 고등학생 이상 학생증지급 30% 본인만 적용 • 청소년 20세~29세(40세이상) 학생증지급 20% 본인만 적용 •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1~2명) 본인 및 동반 1인, 그 외 동반자 적용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1~2명) 본인만 적용 * 장애인 1인 적용 * 장애인(1~2명) 본인만 적용 * 장애인(1~2명) 본인만 적용 * 장애인(1~2명) 본인만 적용

주최 당진문화재단 | 후원 당진문화재단,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문화예술위원회, 당진문화재단,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문화예술위원회, 당진문화재단,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문화예술위원회

제11회
제주해비치 아트페스티벌

11th JEJU HAEVICH ARTS FESTIVAL

2018. 6. 18. MON - 2018. 6. 21. THU

본행사
6.18(MON) - 21(THU)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전야제
6. 16(SAT) 16:00
제주아트센터

제주인(in) 페스티벌
6. 14(THU) - 24(SUN)
제주주요지역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HYUNDAI, JIBS, 협찬 Haevichi

당진문화의전당 브랜드공연
씨네라이브(CINE LIVE)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화감상과 더불어
영화 속 명곡들을 LIVE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MISS Saigon

미스 사이공

2018. 6. 21. THU 19:30
당진문화의전당 소공연장

Overture
Why God, Why?
Sun and Moon
The Last night of the World
American Dream
I'd Give My Life for you
Now That I've Seen Her
Bui Doi

주최 · 후원 당진문화재단 | 후원 당진문화재단, 당진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문화예술위원회 | 문의 041-350-2911~4 | 예매 www.dangjinart.kr | 티켓 가격 (1인 4매까지 예매가능)
* 노쇼(no-show) 징자를 위하여 예매 후 취소는 공연 3일전까지만 가능하며, 예매 후 공연관람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3일간 당진문화의전당 무료기획공연 예매가 불가능합니다.

당진문화의전당 | 당진문화예술위원회

롤무랄라 문화짜장

2018 생활문화활동가 육성사업 참가자 모집

모집대상
문화사업 활동 유경험자, 생활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자

모집기간
2018. 06. 01(금) - 2018. 06. 16(토)

교육기간
2018. 06. 20(수) ~ 2018. 10. 10(수) - 4개월

장소
당진문화예술학교 및 프로젝트 현장

신청방법
①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www.dangjinart.kr) 접속
② 커뮤니티-사업공모에서 공지글 확인
③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참여비
무료

참여혜택
* 전 과정 참여자에 과정 수료증 발급
* 교육과정별 수시 맞춤형 멘토링 진행
* 참가팀 별 실습비 차등 지급 · 프로젝트 지원

문의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팀 041-350-2931

프로그램 내용

문화기획의 이해	관심프로젝트 기획실습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실행 멘토링&모니터링
6월 매주 수, 금 / 8회	7월 매주 수, 금 / 8회	8월 - 10월 매주 수 / 10회
6. 20 / 14:00 - 18:00 문화기획자의 만남 지역사회 문화기획으로 살아가는 법	7. 4 / 14:00 - 17:00 과제선정 및 도전이슈 탐색 자율-매칭, 관찰 등	팀별 프로젝트 진행 및 멘토링 결과 공유회
6. 22 / 14:00 - 18:00 생활문화정책 이해 생활문화 기획활동 사례공유	7. 6 / 14:00 - 17:00 자율-매칭, 관찰 등	7. 11 / 10:00 - 18:00 공감지도 만들기
6. 27 / 14:00 - 18:00 생활문화 기획활동 사례 공유2	7. 13 / 14:00 - 17:00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개발	7. 18 / 14:00 - 17:00 아이디어 완성 프로젝트 타입 만들기
6. 29 / 14:00 - 18:00 생활문화 기획활동 사례 공유3	7. 20 / 14:00 - 17:00 모의테스트, 현장 시나리오	7. 25 / 10:00 - 18:00 현장 실습
	7. 27 / 14:00 - 17:00 현장 피드백 보완/수정	